

“1000만원대 스마트팜 보급 확대 농업소득 3000만원 시대 열겠다”

**강호동 농협회장 취임 1주년
설치비 70% 지원해 부담 완화
스마트폰 제어, 영농비 등 절감
“농업소득 증대에 생산성 향상”
적자 계열사 고강도 구조조정**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보급형’ 스마트팜의 농가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설치에만 수십억 원이 드는 정통 스마트팜과 달리, 보급형은 1000만원대의 비용으로 설치 가능하다. 농협이 설치비용의 70%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강 회장은 6일 세종농림축산식품부 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돈 버는 농업을 만들겠다”며 “정부와 협력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이 가능한 보급형 스마트팜을 금년도에 농가 1000여 곳에 보급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노동력 절감 및 영농비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급형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비용은 1100만원~15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강 회장은 “(설치하면 그 후) 스마트폰으로 물이랑 영양제도 주고 온도 조절도 하고 정말 편리하다”며 “큰돈 들이지 않아도 된다. 농협이 70% 보조, 각 농가가 30% 자부담”이라고 했다.

보급형 스마트팜의 전국 농가 확산을 통해 농가 총소득 중 농업소득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는 “농업소득이 1000만원(1114만원)에 정체가 있다”며 “스마트팜 보급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6일 세종농림축산식품부 청사에서 올해 사업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농협

을 통해 (평균 농업소득) 3000만 원 시대를 열어 보겠다. 일할 사람이 없는 농촌에 인력대체 효과, 생산성 향상을 획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도 의견을 많이 교환했다고도 강 회장은 밝혔다.

또 설립 농업소득 3000만 원 달성이 어렵더라도 가시적 성과는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협 계열사 경영 관련해서는, 적자난 계열사에 대해 지구책 마련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농촌에 대한 역할이 미비하고 문제가 있는 계열사의 경우, 과감히 수술대에 올려 정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문제가 추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 ‘폐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사고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도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은행 등 전국에 6000여 개의 사무실이 있다. 바람 잘 날이 없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취임 이후 금융사고를 확실히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 제재를 가했다”고 했다. 이어 “승진 제한 등 일벌백계한다는 마음으로 단속 체계를 고도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올해 사회공헌 활동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농촌 왕진버스 운영과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을 확대해 농촌 복지 증진에 나선다. 또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먹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농협은 쌀 가공식품 육성 및 수출확대를 통한 ‘5만 톤(t) 이상의 쌀 소비’를 목표로 내걸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국-스페인,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

KIAT, 산업기술개발센터와 업무협약

한국과 스페인 양국이 첨단산업 분야 공동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차 한-스페인 산업기술협력 공동위원회’에서 스페인 산업기술개발센터(CDTI)와 업무협약(MOU)을 갱신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CDTI는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스페인 과학혁신부 산하 기관이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스페인 과학혁신부 테레사리에스고 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이 참석했다. KIAT와 CDTI는 지난 2016년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유럽의 다자간 연구개발 지원 사업인 ‘유레카’를 통해 한국 정부 기준 28개 연구 과제를 지원했으며, 2023년부터는 추가로 양자간 중대형 규모의 연구개발 지원에도 합의해 현재까지 4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갱신한 협약에서 두 기관은 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산업기술개발센터(CDTI)와 업무협약을 갱신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주 KIAT 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실장, 스페인 과학혁신부 테레사리에스고 차관보, 호세 모이세스 마르틴 카레테로 CDTI 원장). /KIAT

-스페인 중대형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2026~2028년까지 향후 3년 동안 매년 500만 유로(한화 약 75억)씩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KIAT는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 중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양국 전문기관 간 동반자 관계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APEC 회원국, 2030 식량안보 로드맵 점검

농식품부, APEC 식량안보 실무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이 경주에서 식량안보 협력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부터 사흘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APEC 제1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았다.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을 경주, 인천, 제주 등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21개 회원국에서 120여 명의 참가자가 모여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식량안보 장관회의의 주제를 채택했다. 올해 회의 주제는 ‘공동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 혁신 강화로, 기술 분야를 포함한 정책 및 제도적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또 2030 식량안보 로드맵의 추진 상황 점검과 올해 만료되는 식량안보 정

책 실무회의의 운영 세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오는 8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식량안보 장관회의(FSMM)에서는 회원국 농업 장관들이 각국의 농식품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담은 선언문 채택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회의 첫날인 4일 경주 양동마을을 방문해 우리나라 전통 농촌을 체험했다. 양동마을은 조선시대 고가옥과 초가가 보존된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각국 참가자들이 한국 농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며 “8월에 열릴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태 지역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수출 위기, 중견기업 글로벌 사업으로 돌파”

코트라-산업부, 글로벌 진출 지원
강소·중견기업 총 300사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025년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이하 중견기업 글로벌 사업)’에 강소·중견기업 총 300개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연간 최대 2억원(기업 매칭액 포함)의 범위에서 △1대 1 수출 컨설팅 △해외무역관 특화마케팅 △전시회 △국제운송 △해외규격인 증 등 수출에 꼭 필요한 7000여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코트라와 코트라 해외무역관, 선정 기업 3자 협업체계를 통해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해당 시장에서 수행할 해외 마케팅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 로드맵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 참여기업은 2020~2024년 연평균 18%의 수출액 성장을 기록했으며, 목표시장 수출액도 역대 최대인 147억달러를 달성했다. 참여기업 평균 수출액은 7228만달러로 중견기업 평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본사 전경.

수출의 4배가 넘는다.

코트라는 전격적 요청자인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왔다. 메타바이오메드사의 경우 두바이, 호치민에서 고객 행사를 개최하고, 중동·아세안·인도 등 주력시장 수출이 4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불담볶음면 제조업체 삼양식품은 태국에서 신제품 론칭으로 지난해 7억달러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돕는 한편, 미국 관세정책, 환율변동 등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에도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무역관 20개소를 ‘관세대응 전담 헬프데스크’로 지정하고 산업별 수출전문가와 협력해 ‘관세전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체시장 진출 지원사업(30종)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에 앞장설 예정이다.

전준우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코트라는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을 통해 통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수출 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상반기 중 글로벌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 평가에서는 최근 3년간 매출액, 수출액, 수출증가율, 종업원수 등 계량 지표와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이용계획 등 비계량 지표를 종합 평가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hvoucher.com)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전, 행안부 주관 데이터 평가 최고 등급

전 항목서 고득점 달성, 역대 최고점

한국전력은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데이터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과 역대 최고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개방확대와 개방관리 노력 수준을 점검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97.75점(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 89점)을,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해 기관 내 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노력을 점검하는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에서 98점(평균 89점)을 받아 자체 최고점을 달성했다.

한전은 2019년부터 전력데이터 개방포털을 운영해 왔으며, 2024년에는 활용도 저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구간 세분화, 패키지 데이터셋 제작 등으로 활용도를 대폭 향상시킨 점에서 타 기관 대비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2020년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자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콘크리트 전주(올해 2월 기준 약 985만기) 자동진단 솔루션 개발로 전주의 유지보수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